

## 국내 시판 코르셋 룩의 패턴 및 구성 실태분석

정현정\* · 나수임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의상디자인전공 석사\*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 패션디자인전공 교수

## An Analysis of the Pattern and Formation of Corset Look on the Domestic Market

Jung Hyunjung\* · Rha Sooim

Master's, Sangmyung University, College of Design, Fashion Design Major\*  
Professor, Sangmyung University, College of Design, Fashion Design Major

###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the pattern and detailed formation of corset look which has established itself as a sort of fashion look as people began to wear underwear as part of outer garment. The study tried to present basic materials helpful for developing and creating the design and pattern of corset look. First, the collected corset look of each brand was copied and then developed. According to the result, corset look's representative silhouette turned out to be hourglass silhouette that tightened up the waist with an emphasis on expressing the beauty of the body. However, unlike corsets of the past, corsets today are being created with focus on the design rather than using lots of incision lines. Second, The bust girth of corset look items turned out to have little function to compress and deform the body like the corset of the past that was far smaller than the body. In addition, the corset style that used the lines of corset alone as motive turned out to have the larger waist girth. Third, the dismantling of collected corset look showed that the materials and formation features of corset look have become simple and that the simplification of corset look has made the items of corset look everyday clothes which can be worn practically and universally.

**Key Words** : corset look(코르셋 룩), pattern(패턴), formation(구성실태), dismantling(실물해체)

---

+ 본 논문은 석사학위논문의 내용을 부분 발췌한 것입니다.

Corresponding author; Jung Hyunjung, Tel.+82-41-550-5199, Fax.+82-41-550-5206  
E-mail:-riddle-@hanmail.net

## I. 서론

과거에는 속옷이 가장 안쪽에 착용하는 의복전반을 지칭하였으나, 20세기 후반에는 성적인 정책, 현대의 기술, 패션스타일의 빠른 계승, 대중매체의 발달 등으로 겉옷과 속옷의 경계가 흐려져 단순히 겉옷 안에 입혀지는 의복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속옷의 형태를 띠면서 겉옷으로 입혀지는 의복까지도 속옷으로 포함하게 되었다.<sup>1)</sup> 이런 경향은 미에 대한 가치가 사회의 변화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며 현대의상에 있어서도 새롭게 변화 발전되고 있는 현상 중의 하나이다.

1990년 장 폴 고티에(Jean-Paul Gaultier)에 의해 디자인되고 마돈나에 의해 선보였던 코르셋 드레스는 대중으로 하여금 속옷에 대한 개념과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장 폴 고티에의 코르셋 드레스를 계기로, 속옷 같은 겉옷, 겉옷 위에 입는 속옷 등 일상복과 속옷이 믹스된 스타일이 계속해서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을 통해 발표되면서 속옷은 하나의 완전한 패션스타일로서 인식되었다. 이러한 속옷 스타일들의 대부분은 신체에 밀착되어 바디 컨셔스(body conscious)의 특성을 띠면서 코르셋 룩이라는 현대패션의 새로운 한 스타일로 정착하게 되었고, 더 이상 속옷의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일상패션의 한 장르로서 자리 잡고 있다.<sup>2)</sup>

또한 첨단 스트레치 소재 기술의 개발은 겉옷과 속옷의 소재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 코르셋 룩 바디 컨셔스 패션 현상을 가속화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최근 몇 년 사이 파티나 클럽문화가 정착함에 따라 섹시 룩, 파티 룩, 코르셋 룩 등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그 중 신체를 노출함과 동시에 특정부위를 보정해 줄 수 있는 코르셋 룩이 이러한 시대현상의 대표적인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다.

코르셋 룩과 관련된 선행연구에는 코르셋 룩의 디자인적 특성과 조형성 등을 다룬 최경희<sup>3)</sup>, 권은정<sup>4)</sup>, 김선영<sup>5)</sup>의 연구가 있고, 속옷의 겉옷화 현상과 코르셋 룩이 지닌 미적 특성을 살려 창작품을 제작한 고영아, 최현숙<sup>6)</sup>, 구정윤<sup>7)</sup>, 조영란<sup>8)</sup>의 연구가 있다. 또한 윤진아, 이명희<sup>9)</sup>는 란제리 룩의 노출 부위에 따

른 시각적 평가를 연구하였고, 이지아<sup>10)</sup>는 코르셋 이미지를 현대 패션에 응용한 창작품을 제작하였다. 코르셋 룩의 패턴 제작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코르셋 패턴을 시대별로 연구한 박상희<sup>11)12)</sup>의 연구가 있고, 원형개발에 관한 김시만, 성옥진<sup>13)</sup>의 연구가 있다. 또한 윤진아, 이명희<sup>14)15)</sup>의 코르셋 룩의 표현적 특성과 구성요소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한 창작품 제작을 위한 패턴 연구가 있다.

지금까지 코르셋 룩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로는 코르셋 룩의 특성, 역사적 고찰이나 속옷의 겉옷화의 사회 문화적 측면 연구, 창작품제작과 그에 따른 패턴 연구가 있다. 그러나 실제 시판되어지고 있는 코르셋 룩의 패턴과 구성적 측면을 직접 조사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고, 이에 대한 연구는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하나의 시대현상으로 나타난 속옷의 겉옷화 현상과 함께 패션 룩으로 자리 잡게 된 코르셋 룩의 패턴 및 세부적인 구성실태를 고찰하는데 있고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하여 코르셋 룩의 디자인과 패턴 개발 및 제작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며,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시판되고 있는 코르셋 룩이라 평가되어지는 제품의 패턴 분석을 통해 과거의 코르셋과 변화된 내용을 알아 본다.

둘째, 코르셋 룩의 실물해체를 통해 과거의 코르셋과 구성요소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현재 유행되고 있는 코르셋 룩의 특성을 알아 본다.

## II. 이론적 배경

### 1. 코르셋 및 코르셋 룩의 정의

코르셋이란 가슴부터 허리에 걸쳐 체형, 특히 몸통을 가늘고 아름답게 다듬기 위한 여성용 속옷이다.

코르셋은 다른 어떤 속옷보다도 가장 오랫동안 여성을 구속해온 의복으로 흉부에서 복부까지 몸을 지탱해 주거나 그 시대에 유행되는 의상의 아름다운 실루엣을 표현하기 위해 체형을 보정시키고자 사용

되었던 속옷으로 16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일반화 되었다.

또한 복식 사전에 의하면 코르셋은 파운데이션의 일종으로 허리부분의 체형을 유지시키기 위한 부인용 내의를 뜻하며 가슴 밑 부분부터 허리부분에 걸쳐 체형을 만들어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가로로 주름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고래의 연골이나 철강, 골 등으로 모양을 유지시켰다. 재료로는 면포, 견포(특히 새틴), 나일론에 고무줄을 넣은 천 등이 사용되고 있다. 뒷부분을 끈으로 엮어서 몸의 크기에 따라 민감하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었으나 현재는 끈을 떼어서 풀라매는 대신에 고무줄을 넣은 천을 사용하여 조절하고 있다. 20세기 들어와서는 거들에 속하게 되었다.<sup>16)</sup>

코르셋이란 명칭은 시대와 나라에 따라 달라서 중세시대에는 꼬르사주(Corsage), 르네상스 시대에는 바스퀼느(Basquine), 또는 꼬르피게(Corps -pigue), 17세기 바로크 시대에는 꼬르 발렌느(Corps Baleine)로 불렸으며, 18세기 이후 영국에서 코르셋이란 명칭으로 남녀 모두 착용되었다. 나무, 고래뼈, 강철 등의 단단한 심을 넣어 특수한 형태로 만들었으며, 여러 세기에 걸쳐 여성에게 우아한 복장의 외형과는 반대로 여성의 자연스러운 체형과 쾌적함의 제한, 또 성 기관이 손상되는 위험과 같은 육체적 고통을 주었다.<sup>17)</sup>

그러나 많은 폐단과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까지도 지속되어 온 것은 여성의 성적 매력에 강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1890년경에는 코르셋에 의해 가능했던 S자형이 유행하였으며, 그 후 신축성 있는 신소재가 개발되고, 자연스런 인체의 실루엣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패션이 진보됨에 따라 과거의 코르셋은 사라지고 보디슈트나 거들의 형태로 착용하고 있다.

코르셋 룩의 정의에 관해 살펴보면, 김선영<sup>18)</sup>, 구정윤<sup>19)</sup>은 코르셋 룩은 코르셋을 악센트로 하는 여성적인 스타일을 말하는 것으로 코르셋을 본떠 겹옷으로 입도록 디자인된 것과 체형을 다듬기 위한 속옷으로서의 코르셋을 겹옷으로 입는 경우까지 포함해 코르셋 룩이라 한다고 정의하였다. 최경희<sup>20)</sup>는 코르셋 룩은 코르셋을 악센트로 한 여성적인 스타일을 말하며, 코르셋이라 해도 속옷에 사용하는 것이 아

니고, 겹옷으로 디자인된 코르셋과 같은 모양의 일종으로 코르셋이 가진 본래의 기능뿐만 아니라 겹옷으로서 디자인되어진 코르셋과 같은 모양을 일컫는다고 했다.

이지아<sup>21)</sup>는 코르셋 룩은 코르셋을 악센트로 한 여성스러운 스타일로서, 코르셋이라 해도 속옷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겹옷용으로 디자인된 코르셋과 같은 일종으로 폭넓은 벨트를 사용해서 코르셋의 착용 모습을 표현한다고 코르셋 룩의 정의를 내렸고, 윤진아<sup>22)</sup>는 코르셋 룩을 속옷으로서의 기능 보다는 겹옷의 기능을 하고 겹옷의 형태를 띄는 것이라고 정의 했다.

본 연구에서는 코르셋 룩은 코르셋을 악센트로 한 여성적인 스타일을 말하는 것으로 속옷 모양을 소재와 디자인을 다양하게 하여 겹옷으로 입도록 된 것을 코르셋 룩이라 정의한다.

현대 패션에서 나타나는 코르셋 룩은 코르셋을 겹옷으로 변형시켜 기존 복식에 대한 도전적인 이미지의 해체주의적 경향으로 나타나는데, 코르셋은 인프라 의상의 주된 아이템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sup>23)</sup> 이와 같은 속옷의 겹옷화 현상은 브라지어(brassiere), 슬립(slip), 가터벨트(garter belt) 등의 란제리(lingerie)를 비롯하여 코르셋(corset), 페티코트(peppicoat)등을 겹옷으로 변형하여 복식 영역 간의 크로스오버(crossover)를 시도하여 의외성을 나타내며 다양하게 시도되어지고 있다.

코르셋 룩에서 나타난 스타일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인체를 졸라매어 압박을 가해 형태 변형을 초래하는 타이트레이스드 코르셋(tight-laced corset)과 둘째, 복식사에 나타난 과거의 코르셋을 그대로 재현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코르셋의 라인만을 모티브로 응용하고 이질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본래 기능과는 다른 스타일로 구분되어지는데, 이들은 다양한 소재와 참신한 아이디어로 현대패션에서의 새로운 디자인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sup>24)</sup>

## 2. 코르셋 룩의 구성요소

코르셋이란 파운데이션의 일종으로 가슴부터 허리에 걸쳐 체형, 특히 몸통을 가늘고 아름답게 다듬기

위한 여성용 속옷으로 몸을 조여 주어 여성 신체 라인의 곡선을 드러나게 하는 실루엣이 특징이다. 코르셋 룩이란 코르셋의 특징을 걸뒀화한 것을 말하며 코르셋의 구성방법이나 형태 및 디테일을 이용하므로 관능적이고 여성적인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코르셋의 특징에 기준하여 코르셋 룩의 구성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실루엣 및 절개선

코르셋이란 인체를 조여 여성적인 실루엣을 강조하는 기능을 하는 옷이었으므로 인체에 피트시키기 위하여 패턴이 여러 조각의 수직절개선으로 구성된다. 코르셋 룩에서 보여 지는 절개선은 대표적으로 가슴부위에서 사선으로 재단된 것과, 수직절개를 사용하여 위에서 아래까지 절개하여 피트시킨 형태로 나누어진다. 과거 코르셋에서 보여 지는 절개선의 형태는 직선을 사용하여 입체적이긴 하지만 실루엣이 부드럽지가 못하였기 때문에 패턴의 일부분을 절개하여 그 사이에 거시트나 고어와 같은 무를 넣어 봉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패턴의 조각 수가 적었다. 그러나 패턴이 점차 더 입체적이고 부드러운 곡선의 볼륨을 살리는 쪽으로 발전하면서 패턴을 다양하게 분할하고 그 사이에 거시트를 넣거나 또는 모든 패턴 선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제작하게 되었다.

코르셋 룩의 전체적인 실루엣은 과거 코르셋의 형식과 이미지를 사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여성 인체의 곡선미를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직·간접적인 노출을 표현하고 허리를 조여 가슴과 힙 등 성적 부위를 강조하고 섹시한 실루엣으로 표현하였고, 코르셋 라인이나 형태, 디테일을 모티브로 한 캐미솔 네크라인, 슬리브리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 2) 소재

전통적인 코르셋의 소재로는 린넨이나 울 사이에 나뭇조각, 고래수염, 뿔, 금속, 상아로 만든 버스크를 넣고 촘촘하게 누벼서 사용하였고, 이 후에는 신축성 있게 짠 능직의 면직물과 고래수염으로 만들었으며, 18세기 후반에는 일반적으로 드릴(drill)이라고 하는 두꺼운 능직의 천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이 직

물이 두껍고 딱딱한 것에 비해 신축성이 있어 사용되었다고 한다. 19세기 전기 엠파이어 시대에 이르러 능직의 면포에 고래수염으로 심을 넣어 신축성을 유지하였다. 1844년 뒤몰랭(Dumoulin)여사에 의해 딱딱한 버스크나 고래수염을 사용하지 않고 형감을 조각조각 연결한 코르셋이 고안되어 널리 보급되었다. 1930년대에는 직물산업의 발달로 라텍스와 슬라이드 파스너를 이용한 실크 코르셋이 제작되었고 이후에는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었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코르셋 룩을 살펴보면 과거부터 코르셋에 사용되어온 새틴, 레이스 등의 전통적인 소재뿐만 아니라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소재 등이 다채롭게 사용되었다. 시폰, 레이스, 실크 등의 소재를 통해 간접적으로 감추어진 인체미를 표현하였고 저지, 폴리에스테르 등의 소재는 인체에 꼭 달라붙어 실루엣을 드러냄으로써 성적 상징을 표현하였다.

그밖에 금속, 유리, 메탈, 나무, 플라스틱, 신소재 등의 이질적인 소재를 사용하거나 가죽이나 진 소재를 사용해 전위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비닐이나 글리터 소재를 이용해 화려하며 에로틱한 이미지를 표현한 특징들을 볼 수 있다.

### 3) 디테일

코르셋의 형태구성상 필요한 디테일인 와이어나 패딩, 파이핑을 이용해 코르셋의 형태와 절개선을 표현한 라인을 응용한 디테일을 많이 사용하였다. 시각적 효과가 큰 여성스러운 느낌의 프릴, 러플 등의 곡선형 주름장식이 부분적으로 사용되어 화려함을 돋보이게 하였고, 리본, 셔링, 레이스 등 보편적으로 대중화된 걸뒀에 즐겨 사용하는 장식으로 대중성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 4) 부자재

코르셋의 안감으로는 린넨이나 면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곡선 처리가 되어있는 부분, 암홀이나 탭스의 가장자리 등은 바이어스 테이프를 만들어 사용하고 앞 네크라인 같은 부분은 좁은 바이어스 테이프를 사용하여 그 형태를 잡아 주었다. 현대 의복에

있어서 심지 및 테이프, 안감 등의 부자재는 주로 형태를 안정시켜 외관에 나타나는 모양을 살려준다.

또한 과거 코르셋에는 신체를 탄탄하게 조여주기 위해 다양한 심대를 사용하였는데 고래 뼈 이외에도 철재로 된 뼈대도 사용되었다. 코드나 끈, 나무줄기, 다양한 굵기의 노끈이 대용품으로 쓰였으나 내구성이 적어 후에는 완전히 고래 뼈가 주가 되었다. 현대 코르셋 룩에서 와이어는 기능적인 면 보다는 주로 장식적인 면이 대부분이며, 재질 또한 주로 플라스틱 와이어로 간략화 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5) 여밈

코르셋의 여밈은 앞 중심보다는 뒤에 위치하는 것이 많아서 대개 다른 사람이 허리를 조여 주었다. 여밈 부분은 걸쇠 등의 간격과 폭에 맞추어 봉제한 후 걸쇠와 송곳으로 작은 구멍을 뚫어 대를 삽입한 후 이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걸쇠대에 가깝게 봉제하였다. 과거 코르셋의 여밈으로 주로 사용되었던 타이트 레이싱이 과거 뿐 아니라 현재의 코르셋 룩에도 반영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 타이트하게 조이지 않고 넓게 묶어 안이 보이는 형태로 처리하

여 여밈의 역할을 할뿐 아니라 디테일적인 효과까지 함께 나타나고 있다. 벨트나 지퍼, 후크, 타이트 레이싱 등이 현대 패션에서는 여밈의 목적인 기능성 뿐 만 아니라 의복의 미적 가치를 높여주는 장식적인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선정

코르셋 룩은 속옷의 디자인이나 이미지 등의 요소를 겉옷 디자인의 모티브로 한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대부분 칼라가 없고, 소매가 없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시판되고 있는 코르셋 룩의 패턴 및 구성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현재 국내에 입점 되어 있는 브랜드 중에 2009년 여름에 출시된 ZARA, FOREVER21, MANGO, ARMANI JEANS 등 주로 패스트 패션 브랜드라 불리는 브랜드의 제품 중 위와 같은 코르셋 룩의 특성을 지닌 제품을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선정된 브랜드들은 최근 20대 중·후반의 여성들이 선

<표 1> 샘플 A~F의 실물사진

|   | 샘플 A | 샘플 B | 샘플 C | 샘플 D | 샘플 E | 샘플 F |
|---|------|------|------|------|------|------|
| 앞 |      |      |      |      |      |      |
| 뒤 |      |      |      |      |      |      |

호하고 있는 글로벌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로 항상 수많은 스타일의 출시와 더불어 패션 트렌드를 선도하여 소비자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 브랜드들이다. 트렌디 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유행에 따라 높은 회전율을 보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현재 유행하고 있는 상품을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4개의 브랜드에서 앞서 제시된 코르셋 룩의 특성을 갖춘 제품으로 평가되는 6점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샘플은 <표 1>과 같다.

## 2. 분석방법

### 1) 코르셋 룩 제품의 패턴 분석

선정되어진 코르셋 룩의 패턴 분석을 위해 패턴 경력이 15년 이상이며 현재 패턴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패턴너가 패턴을 모사하게 하였다. 모사되어진 패턴은 사이즈 측정후 2인치 편차로 그레이딩 한 뒤 55사이즈로 사이즈를 통일하였다.

### 2) 코르셋 룩 제품의 구성실태 분석

각 각의 제품 제작에 사용된 세부적인 구성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겹감과 안감을 부위별로 분리하여 봉제의 특성 및 심지, 각종 테이프와 와이어 등 부자재의 사용여부 등을 실물해체를 통해 특성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고찰

코르셋 룩의 정의 및 구성요소적 특징을 기준으로 선정되어진 샘플의 패턴을 분석하고 실물해체를 통한 구성실태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코르셋 룩의 형태적 특징

코르셋 룩은 속옷의 디자인이나 이미지 등의 요소를 겹옷 디자인의 모티브로 한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대부분 칼라가 없고, 소매가 없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깊게 파인 네크라인 형태로

인해 가슴부위로 시선을 끌게 하고 성적 매력을 나타내게 한다.

샘플 A의 경우 전체적으로 몸의 곡선을 따라 사선형으로 프린세스라인을 중심으로 12조각으로 절개되어 피트되는 형태를 띄고 있다. 길이는 중간엉덩이 둘레선까지 내려오고 어깨끈이 있지만, 기능적이라기 보다는 장식적인 역할만 하고 있다.

샘플 B는 11개의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 프린세스라인을 이용한 수직절개선으로 형태를 표현하고 있다. 허리선에서는 앞의 프린세스라인부터 뒷부분은 페플럼의 형식으로 변형된 형태이다. 어깨끈 없이 피트되는 형태로 허리선 아래로는 여러 겹의 안감을 사용해 볼륨을 준 형태다. 전체적으로는 코르셋 룩의 특징인 성적인 매력보다는 귀여운 느낌의 형태로 보여진다.

샘플 C는 가슴을 강조한 수직절개선을 포함하여 15개의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슴 캡부분도 수평절개선을 넣어 피트시켜 유방을 강조하고 앞의 수직 절개선은 앞 중심을 향해 사선으로 절개하여 허리를 더욱 가늘어 보이게 한 고전적인 코르셋의 형태이다. 구성적으로 가슴패드와 와이어를 사용해 가슴은 더욱 볼륨감 있게 허리는 더욱 가늘어 보이게 하고 있다. 뒷부분의 절개선도 변형된 프린세스라인과 뒤중심 부분에 절개선을 2개 넣고 와이어로 구성하여 몸에 밀착되도록 하는 전통적인 코르셋에 가까운 형태로 보여진다.

샘플 D의 경우 21개의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슴 캡부분은 수평절개선과 수직절개선을 함께 넣어 좀 더 입체적으로 패턴화하여 유방을 강조하고 몸판부분은 기본의 프린세스라인을 이용하였으며 허리선을 5cm 정도 내려서 페플럼을 달았다. 또한 페플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실루엣이 A-라인이 되도록 패턴화 하였다. 샘플 D는 구성절개라인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과거의 코르셋처럼 몸에 밀착되어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디자인을 위한 구성선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구성적인 부분에서도 와이어 없이 어깨끈을 넣어 속옷의 형태를 하고 있으나 기능적인 부분은 없는 코르셋 룩의 형태이다.

샘플 E는 몸판부분이 9개의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기본의 프린세스라인으로 수직

절개 하였다. 기본적인 구성 절개라인을 사용하고 할터넥(halter neck) 디자인의 끈으로 하여 과거의 코르셋처럼 몸에 밀착되어 압박하는 디자인이 아니며 이는 구성적인 부분에서도 와이어 없이 어깨끈을 넣은 속옷의 형태를 하고 있어 기능적인 부분은 없는 전형적인 코르셋 룩의 형태이다. 사이즈도 가슴둘레 85cm, 허리둘레 68cm로 다른 샘플보다도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안감과 겉감의 패턴이 다른 스타일로 겉감에 시폰을 사용하여 전체 셔링을 잡은 형태인데, 이렇게 얇고 섬세한 소재의 사용은 여성적인 부드러움을 나타낸다.

샘플 F의 형태적 특징은 몸판부분이 18개의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몸의 곡선을 따라 사선형으로 프린세스라인을 중심으로 절개되어 피트되는 형태를 띄고 있다. 절개의 형태도 가슴의 유방선을 절개하고 B.P에서 수직절개를 다시 하여 몸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절개하였고 옆선의 중간영역

이 부분도 사선으로 절개하여 인체의 라인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샘플 F의 구성적인 부분과 연결해서 보면 흘겹으로 되어 있고 와이어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옷을 몸에 피트시키기 위해서 다른 샘플보다 사이즈도 가슴둘레 82cm, 허리둘레 64 cm로 작게 되어 있고 절개선도 특징적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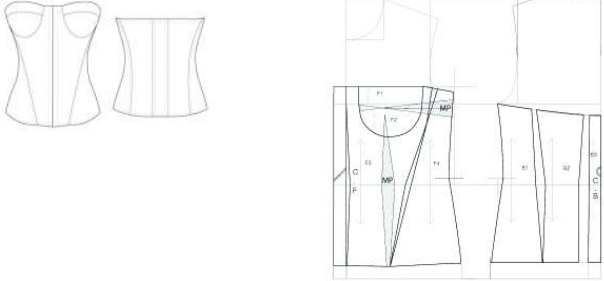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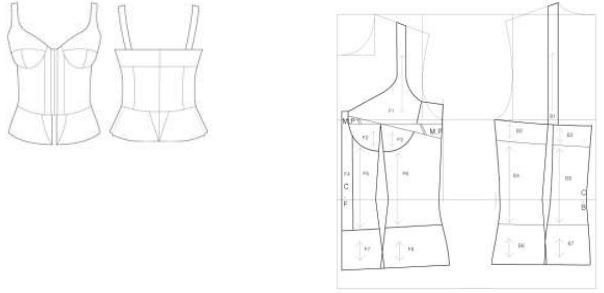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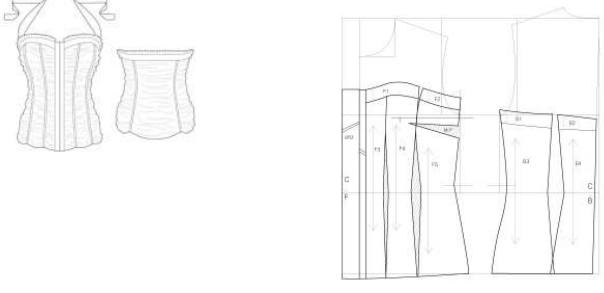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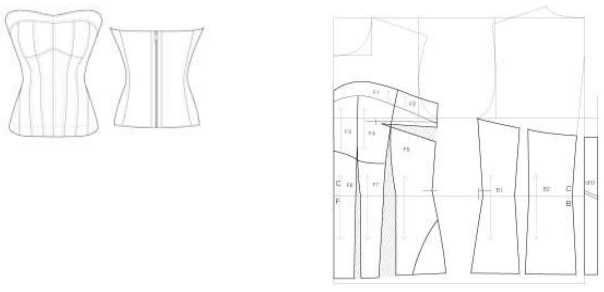
이러한 분석 내용으로 보면 코르셋 룩에서 나타난 스타일은 과거의 코르셋과 비슷한 타이트레이스드 코르셋(tight-laced corset)과 코르셋의 라인만을 모티브로 이질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본래 기능과 다른 스타일로 크게 구분되어진다.

즉 현대 코르셋 룩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코르셋의 전체적인 형태를 응용하거나 코르셋의 선적인 요소와 실루엣만을 응용하는 경우가 있다. 주로 피트니스를 부각하고 자연스러운 인체의 곡선을 강조하거나, 선정적인 모습을 극대화시켜 가슴과 허리를 강조한다.

<표 2> 코르셋 룩의 형태적 특징

| 샘플 | 도식화 및 패턴 | 특 징   |
|----|----------|---|
| A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슴둘레: 84 cm</li> <li>·허리둘레: 64 cm</li> <li>·밑단둘레: 76 cm</li> <li>·앞길이: 36 cm</li> <li>·뒤길이: 25.5 cm</li> <li>·어깨끈 있음-장식적</li> <li>·수직절개</li> <li>·와이어 사용</li> <li>·12개의 패널로 구성</li> </ul> |
| B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슴둘레: 83 cm</li> <li>·허리둘레: 68 cm</li> <li>·밑단둘레: 80 cm</li> <li>·앞길이: 36 cm</li> <li>·뒤길이: 30.5 cm</li> <li>·가슴강조</li> <li>·와이어 사용</li> <li>·11개의 패널로 구성</li> </ul>                      |

<표 2> 코르셋 룩의 형태적 특징

| 샘플 | 도식화 및 패턴  | 특징   |
|----|---|--|
| C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슴둘레: 84 cm</li> <li>·허리둘레: 65 cm</li> <li>·밑단둘레: 88 cm</li> <li>·앞길이: 37 cm</li> <li>·뒤길이: 28.5 cm</li> <li>·와이어 사용</li> <li>·가슴패드 사용</li> <li>·가슴을강조한수직절개</li> <li>·15개의 패널로 구성</li> </ul> |
| D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슴둘레: 83 cm</li> <li>·허리둘레: 68 cm</li> <li>·밑단둘레: 85 cm</li> <li>·앞길이: 31.5 cm</li> <li>·뒤길이: 28 cm</li> <li>·어깨끈 있음-기능적</li> <li>·가슴강조</li> <li>·21개의 패널로 구성</li> </ul>                     |
| E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슴둘레: 85 cm</li> <li>·허리둘레: 68 cm</li> <li>·밑단둘레: 91 cm</li> <li>·앞길이: 42 cm</li> <li>·뒤길이: 33 cm</li> <li>·어깨끈 있음-기능적</li> <li>·가슴패드사용</li> <li>·수직절개</li> <li>·9개의 패널로 구성</li> </ul>       |
| F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슴둘레: 82 cm</li> <li>·허리둘레: 64 cm</li> <li>·밑단둘레: 76 cm</li> <li>·앞길이: 38.5 cm</li> <li>·뒤길이: 29.5 cm</li> <li>·가슴강조 수직절개</li> <li>·18개의 패널로 구성</li> </ul>                                   |



## 2. 코르셋 룩 제품의 사이즈 분석

수집된 코르셋 룩의 제품에 대한 사이즈를 분석하기 위해 패턴을 모사하여 사이즈 측정후 2인치 편차로 그레이딩 한 뒤 55사이즈로 사이즈를 통일하였다. 각 브랜드의 55사이즈 경우 가슴둘레는 84-86cm, 허리둘레는 64-67cm로 허리둘레가 20cm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표 2>에서 분석된 코르셋 룩 샘플들의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사이즈를 살펴보면 가슴둘레는 82-85cm, 허리둘레는 64-68cm의 범위 내에서 변화를 주고 있으며 일반제품의 편차와도 차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슴둘레는 샘플 F의 경우 82 cm, 샘플 B, D는 83 cm, 샘플 A, C는 84cm로 나타났다. 즉 코르셋 룩에서 제품의 가슴사이즈는 누드사이즈와 거의 일치하거나 작으며 과거의 코르셋처럼 몸의 사이즈보다 많이 작아서 인체를 압박하고 변형시키는 기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샘플 F의 경우는 82cm로 구성상 와이어 없이 가슴의 사이즈를 작게 하여 옷을 몸에 피트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또한 샘플 E는 85 cm로 가장 큰 사이즈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는 패턴의 특징을 보면 기본적인 구성절개 라인을 사용하고 할터넥(halter neck) 디자인의 끈으로 하여 과거의 코르셋처럼 몸에 밀착되어 압박하는 디자인이 아니며 이는 구성적인 부분에서도 와이어 없이 어깨끈을 넣은 속옷의 형태를 하고 있어 기능적인 부분은 없는 전형적인 코르셋 룩의 형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허리둘레의 경우 샘플 A, F는 64cm, 샘플 C는 65cm, 샘플 B, D, E는 68cm로 분석되었다. 즉 허리둘레의 경우는 누드사이즈거나 오히려 누드사이즈보다 큰 경우가 3개의 제품에서 나타나 과거의 코르셋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샘플 D, E 처럼 어깨끈이 있어 전형적인 현대의 코르셋 룩으로 코르셋의 라인만을 모티브로 이질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본래 기능과 다른 스타일인 경우는 허리사이즈가 크게 나타났다.

## 3. 코르셋 룩 제품의 구성요소의 특성

### 1) 소재

수집된 코르셋 룩 소재의 섬유조성을 살펴 본 결과, 샘플 A의 경우 겉감이 면 97%, 스판덱스 3%로 약간의 신축성이 느껴지는 소재로 되어 있고, 안감 또한 겉감과 마찬가지로 폴리에스테르 97%, 스판덱스 3%의 혼용율로 되어 있어 신축성 있는 소재로 통일되어 있었다. 샘플 B의 섬유조성은 겉감이 면 80%, 나일론 20%로 되어 있고, 안감은 폴리에스테르 100%로 되어 있다. 샘플 C의 경우는 겉감이 면 97%, 스판덱스 3%로 되어있어 손으로 만졌을 때 신축성이 느껴졌다.

샘플 D의 섬유조성은 겉감이 면 98%, 폴리우레탄 2%로 되어있으며 안감은 겉감과 같은 원단으로 되어 있다. 폴리우레탄이 2% 포함되어 있었지만 손으로 만져 봤을 땐 신축성이 거의 없게 느껴졌다. 샘플 E의 섬유조성은 겉감이 폴리에스테르 100%, 안감이 폴리에스테르 100%로 되어 있다. 겉감은 비치는 시폰과 새틴 두 겹으로 되어져있고 겉감으로 사용되어진 새틴과 같은 원단이 안감으로도 사용되어졌다. 샘플 F의 섬유조성은 겉감이 폴리노직레이온 73%, 나일론 23%, 폴리우레탄 4%로 되어있고 안감 없이 흘겹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현대 코르셋 룩에는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고 있고, 두껍고 딱딱한 소재 보다는 신축성 있는 소재가 많이 쓰이고 있다.

### 2) 디테일

수집된 코르셋 룩 제품의 경우 샘플 E에 시각적 효과가 큰 여성스러운 느낌의 프릴 등의 곡선형 주름장식이 부분적으로 사용되어 화려함을 돋보이게 하였고, 샘플 A, B는 리본, 셔링, 레이스 등 보편적으로 대중화된 겉옷에 즐겨 사용하는 장식으로 대중성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샘플 A와 D, E에 어깨끈이 사용되어졌고, 샘플 A의 경우에는 와이어와 신축성이 있는 소재의 사용으로 몸에 피트되어 어깨끈의 사용은 장식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샘플 D와 E처럼, 소재의 신축성이 적거나 없는 경우 또는 와이어가 사용되지 않아 몸에 피트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어깨끈이 사용되어졌다. 어깨끈이 없는 샘플 C의 경우에는 흘러내림을 방지하기위해 가슴완성선 안쪽

으로 실리콘 밴드를 사용하였고, 샘플 E는 샘플 중 가장 신축성이 강한 소재의 사용으로 와이어와 어깨 끈 없이 몸에 피트되었다. 과거 17세기의 코르셋 형태는 여성의 신체 곡선을 살리기보다 앞판 부분은 뺏뺏하게 하여 가슴을 위로 올려주고 몸을 타이트하게 조이는 형태를 가진다. 따라서 코르셋이 몸에서 흘러내리지 않게 어깨끈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이렇게 과거에는 주로 기능적인 역할을 했던 어깨끈은 현대 코르셋 룩에서는 제품의 소재 및 디자인에 따라 기능적이거나 장식적으로 쓰여 지고 있다.

3) 부자재

수집된 코르셋 룩의 경우 안감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샘플 A의 경우 겹감과 같이 신축성이 있는 소재의 안감이 사용되어졌고, 샘플 B의 경우 두 종류의 안감이 앞 몸판과 나머지 부분에 각각 쓰여 졌다. 앞 몸판에 쓰인 안감의 경우 신축성이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착용감을 좋게 하였고, 밑단 서링 부분에는 두 겹의 안감을 사용하

여 볼륨감을 주었다. 샘플 D와 E의 경우는 겹감과 같은 원단의 안감을 사용하였다. 과거에는 안감에 주로 린넨이나 면 등을 사용하였는데, 현대 코르셋에서는 특정한 소재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졌다. 샘플 C, F처럼 안감이 없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겹감이 신축성이 있는 소재일 때 안감도 신축성 있는 소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안감이 없는 경우 시접처리는 바이어스 테이프로 감싸거나, 오버록 처리 되어 있다. 접착심지 및 식서 접착테이프의 사용은 주로 겹감 원단의 안정성을 좋게 하고 제조공정을 단축시키고 완성품의 균일화를 위해 사용된다. 샘플 A와 C의 경우 신축성 있는 소재의 사용으로 밑단의 늘어남 방지를 위해 10mm폭의 식서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였다. 샘플 C와 E의 경우 여밈의 낸단 부분에 심지를 사용해 안정성을 좋게 하였고, 샘플 F의 경우 가슴 위 완성선 부분에 심지를 사용하였다. 바이어스 테이프는 주로 곡선 처리된 부분이나 안감이 없는 경우의 시접을 처리하는 경우 사용되어지며, 샘플 B의 가슴 위 부분, 샘플 C의 시접부분에 사용되었다.

<표 3> 코르셋 룩 제품의 구성실태

| 샘플 구성요소   |   | A                   | B              | C              | D               | E          | F                               |
|-----------|---|---------------------|----------------|----------------|-----------------|------------|---------------------------------|
| 섬유 조성     | 겉 | 면97%<br>스판덱스3%      | 면80%<br>나일론20% | 면97%<br>스판덱스3% | 면98%<br>폴리우레탄2% | 폴리에스테르100% | 폴리노직레이온73%<br>나일론23%<br>폴리우레탄4% |
|           | 안 | 폴리에스테르97%<br>스판덱스3% | 폴리에스테르100%     | 없음             | 면98%<br>폴리우레탄2% | 폴리에스테르100% | 없음                              |
| 안 감       |   | ○                   | ○              |                | ○               | ○          |                                 |
| 심 지       |   |                     |                | ○              |                 | ○          | ○                               |
| 식서 접착 테이프 |   | ○                   |                | ○              |                 |            |                                 |
| 바이어스 테이프  |   |                     | ○              | ○              |                 |            |                                 |
| 실리콘 밴드    |   |                     |                | ○              |                 |            |                                 |
| 어깨 끈      |   | ○                   |                |                | ○               | ○          |                                 |
| 와이어       |   | ○                   | ○              | ○              |                 |            |                                 |
| 가슴 패드     |   |                     |                | ○              |                 | ○          |                                 |
| 후 크       |   | ○                   |                | ○              | ○               | ○          |                                 |
| 지 퍼       |   |                     | ○              |                |                 |            | ○                               |

또한 샘플 A, B, C의 제품에 와이어가 사용되었고, 샘플 A의 경우 절개선 부분의 시접사이에 모두 5mm 폭의 플라스틱 와이어를 사용하였다. 샘플 B는 옆선을 제외한 나머지 네 곳의 절개선에 6mm의 플라스틱 와이어를 사용하고 샘플 A와 마찬가지로 시접 사이에 끼워 박음질로 고정하였다. 샘플 C의 경우 두 종류의 와이어가 사용되어 졌는데, 가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절개선 부분에는 5mm 폭의 플라스틱 와이어가 사용되어졌고 가슴 절개선 시접 사이에는 금속 와이어를 삽입하고 시접은 바이어스 테이프로 감싸 처리하였다. 과거 코르셋에는 신체를 탄탄하게 조여주기 위해 다양한 심대가 사용되었지만 수집된 코르셋 룩에서는 주로 절개선에 시접이 있는 부분에만 와이어가 사용되어지고 있고, 와이어가 없는 코르셋 룩도 많이 볼 수 있어 기능적인 면보다는 주로 장식적인 면의 코르셋 룩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재질 또한 주로 플라스틱 와이어로 간략화 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 4) 여밈

수집된 코르셋 룩의 제품 중 샘플 A, C, D, E는 흑 앤 아이를 앞여밈에 사용하였고, 샘플 B와 F의 경우 뒤 중심에 오픈 쇠지퍼를 사용하였다. 과거 코르셋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타이트 레이싱은 스틸로 된 아일렛이 생산되기 전까지는 송곳으로 뚫고 그 구멍을 버튼홀 스티치 같은 것으로 마감을 하였으나 그 강도가 강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버튼, 끈, 테이프 또는 리본이 쓰였고 가끔 흑 앤 아이가 달렸다. 현대 코르셋 룩에서의 후크, 지퍼 등은 여밈의 목적인 기능성 뿐 만 아니라 장식적인 용도로도 사용되어지고 있다.

## V. 결론 및 제언

속옷의 역할을 했던 코르셋이 겉옷화가 되면서 나타난 현상은 몸통을 조이는 기능은 코르셋과 같으나 제2의 피부로서의 코르셋 의미를 띄면서 더 이상 코르셋이 불편한 기능적인 속옷의 역할만이 아닌 신체에 적절히 밀착되는 새로운 스타일의 의복으로 나타

났다.

또한 과거 겉옷의 속에서 인체를 조작하던 역할이 20세기 후반에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성의 상징으로서 겉옷으로 표출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하나의 시대현상으로 나타난 속옷의 겉옷화 현상과 함께 패션 룩으로 자리 잡게 된 코르셋 룩의 패턴 및 세부적인 구성실태를 고찰하는데 있고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하여 코르셋 룩의 디자인과 패턴 개발 및 제작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한 각 브랜드별 코르셋 룩의 패턴을 모사하여 전개한 결과 실루엣 및 절개의 변화를 알 수 있었다.

코르셋 룩의 대표적인 실루엣은 인체미의 표현에 중점을 두어 허리를 가늘게 조여 주는 아우어 글래스 실루엣으로 다양한 소재와 구성으로 부드럽고 색시한 여성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실루엣이 선호되고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허리를 줄라매었던 착시효과에 의해서든 가슴과 힙을 강조하고 가는 허리를 부각시키는 실루엣과 가슴부위에서 사선으로 절개하거나 수직 절개를 사용하여 위에서 아래까지 피트시킨 형태는 과거의 코르셋의 형태와 흡사하다고 볼 수 있었다. 가슴을 셔링이나 주름을 사용하여 강조하거나 가슴아래에서 수평방향으로 절개한 스타일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과거의 코르셋만큼 많은 조각으로 절개선을 이용하기 보다는 디자인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둘째, 코르셋 룩 제품의 사이즈 분석결과 분석된 코르셋 룩 샘플들의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사이즈를 살펴보면 가슴둘레는 82-85cm, 허리둘레는 64-68cm의 범위 내에서 변화를 주고 있어 과거의 코르셋처럼 몸의 사이즈보다 많이 작아서 인체를 압박하고 변형시키는 기능은 거의 없고, 코르셋의 라인만을 모티브로 사용하는 스타일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코르셋은 가슴과 허리의 차이가 커서 상대적으로 허리를 더욱 가늘게 보이도록 했으나, 수집된 코르셋 룩 제품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 그러한 특징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셋째, 수집된 코르셋 룩의 실물해체를 통해 소재 및 코르셋 룩을 구성하고 있는 특징들이 간소하게 변화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성이 간소화해짐으로써 코르셋 룩의 아이템들이 실용적이고 보편적으로 입을 수 있는 평상복화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디자인에 중점을 두어 면, 폴리에스테르와 신축소재 등의 실용적인 소재가 주로 사용되어 드레시한 느낌보다는 캐주얼한 느낌의 젊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변화했다. 또한, 안감과 와이어, 심지 등을 생략하여 옷의 무게와 부피감을 줄이고 여미도 디자인에 따라 기능적인 용도를 넘어서 의복의 미적 가치를 높여주는 장식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위에서 나타난 바, 현재의 코르셋 룩은 스타일과 구성적인 요소로 분석한 결과 간소화되고 일상복화되어 드레시한 특수복의 용도보다는 캐주얼한 평상복의 용도로 일반화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코르셋 룩이 하나의 패션 스타일로 자리 잡은 현상이 특정 시대의 유행 경향인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인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이라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샘플은 여섯 개로 한정되어 다양한 코르셋 룩의 패턴 개발 및 제작을 위해서는 소재, 디자인, 구성요소 요인에 대하여 좀 더 다양한 샘플을 수집해 폭 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윤진아(2006), “여자속옷의 걸맞화 현상과 패턴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
- 2) 조경희(2003), *현대패션의 미*, 경춘사, pp.72-73.
- 3) 최경희(2002), “현대패션에 나타난 코르셋 룩의 디자인 분석”, *패션비즈니스*, 6(5), pp.72-86.
- 4) 권은정(2007), “란제리 룩에 나타난 패션디자인의 조형성 연구: 에로티시즘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선영(2008), “현대 패션에 나타난 코르셋 룩의 특성”, *복식문화학회지*, 16(5), pp.924-936.
- 6) 고영아, 최현숙(2000), “Corset의 Supra현상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한국복식학회지*, 50(4), pp.165-180.
- 7) 구정윤(2004), “현대 패션에 나타난 코르셋 룩의 조형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조영란(2004), “의상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의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속옷의 걸맞화 현상을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윤진아, 이명희(2006), “란제리 룩의 노출 부위에 따른 시각적 평가”, *복식문화학회지*, 14(2), pp.320-330.
- 10) 이지아(2007), “코르셋 이미지를 응용한 현대 패션디자인 연구: 신규 브랜드 상품 기획 및 개발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박상희(2008), “Corsetry 제작법 비교연구”, *한국복식학회지*, 58(4), pp.99-112.
- 12) 박상희(2009), “19세기 Corset Pattern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58(7), pp.31-42.
- 13) 김시만, 성옥진(2007), “코르셋 룩 원형에 관한 연구: 20대 전기 표준체형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지*, 57(8), pp.48-59.
- 14) 윤진아, 이명희(2006), “란제리 룩의 디자인 분석 및 실물 패턴 제작”, *한국복식학회지*, 56(7), pp.152-166.
- 15) 윤진아(2006), “코르셋 룩의 표현적 특성을 활용한 의상디자인 및 패턴제작”,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8(2), pp.159-170.
- 16) *패션큰사전* (교문사, 1999), p.579.
- 17) 정홍숙(1999),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p.214.
- 18) 김선영, op.cit., p.925.
- 19) 구정윤, op.cit., p.26.
- 20) 최경희, op.cit., p.73.
- 21) 이지아, op.cit., p.29.
- 22) 윤진아, op.cit., p.160.
- 23) 김선영, op.cit., p.925.
- 24) 최경희, op.cit., p.74.

접수일(2010년 3월 16일)

수정일(1차 : 2010년 4월 28일)

게재확정일(2010년 5월 3일)